**Credit Suisse – IBD**

면접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ktx에서 후기를 남깁니다ㅎㅎ  
면접시간은 9시부터 30분정도였고 다음분이 9시 30분 면접이었던 것으로봐서 30분단위로 스케쥴이 되어있는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래 승우형 후기말대로 회계와 영어가 매우중요하다는 점입니다....summer anal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질문이많이 들어오더라구요ㅠㅠ  
질문내용은

* kfac에서 한 활동들 영어로 소개 -> 탈탈 털렸습니다ㅠㅠ
* 삼성생명 valuation 했다고 되있는데 어떻게 했나?

보험사 평가법인 내재가치법에 대해 설명들였더니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더군요ㅠ

* 현대차 revenue 어떻게 추정했나

이건 나라별로 나눠서 어떻게어떻게 했다하니 괜찮았던것 같습니다.

* depreciation이 50에서 60으로 늘었을때 재무제표의 변화는?

승우형 덕에 tax shield 관련해서 어느정도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ㅎㅎ    추가적으로 I/S, B/S, Cash flow 에 대해 설명하긴 했는데 좀부족했습니다. 승우형이 말해줬었는데..ㅠㅠ    이 문제가 IBD단골 문제인것 같으니 꼭 숙지하고 가세요!!!

* DCF 하는 방법-> 알고있는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EBITDA
* EBITDA 설명해보세요

그냥 fit질문 빼고는 이정도였습니다. 회계질문은 승우형한테 속성받은것도 있고해서 그럭저럭괜찮았는데 역시 문제는 영어....면접자분도 일반적으로 인턴이 번역일을 많이해야한다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쨋든 좋은 경험이었고 (내 ktx비..) 좋은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것 같지만 뭐 좋았습니당ㅎㅎ  
그리고 추가적으로 FCB뒤에 있는 회계와 valuation부분은 큰도 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3학년인데 인턴경험이 없다는 것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빨리 인턴을 구해서 하는 게 중요한것 같습니다~~!!!